
정리와 수집 사이: 한 연구자의 지역 박물관 생활유물 수집과 박물관 교육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I. 들어가며

II. 연구방법 및 배경

1. 자문화기술지
2. 연구 배경 및 맥락

III. 생활 유물 수집의 문제: 그 많던 유물은 다 어디로 갔을까?

1. 도시화와 아파트: '신박한 정리'
2. 농가주택과 방치: '내버리면 죄받아'
3. 생활유물의 탄생

IV. 지역 박물관의 역할과 박물관 교육

V. 맺음말

정리와 수집 사이: 한 연구자의 지역 박물관 생활유물 수집과 박물관 교육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I. 들어가며

2020년 현재 국립·공립 박물관 및 등록 사립·대학 박물관 등 등록박물관의 수는 897개다.¹⁾ 여기에 미등록 박물관까지 합치면 한국에 적지 않은 수의 박물관이 있다.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을 지원 중이며 사립박물관의 경우도 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OECD 가입국가들의 평균인 인구 4만 명당 1개소보다는 미달하지만 현재 5.7만 명당 1개소로 유지되고 있다. 통계청의 e-나라지표는 현재 박물관에 대한 지표와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박물관·미술관 확충 기준 및 근거 또한 공표되어 있는데 특별·광역시/대도시/도청소재지/기초시/기초군/낙후지역 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국립박물관과 시·도립미술관 건립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박물관, 미술관이 특정 엘리트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시대에는 박물관, 미술관 측의 일반 관람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았다. 엘리트 계층을 제외한 관람객들, 즉 일반 대중들은 이방인이

1) 등록 박물관/미술관 현황,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40(검색일: 2021. 10. 1.).

나 간접자였다. 근대 공공박물관이 성립되고부터는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박물관, 미술관은 일반인의 일상생활과 거리가 멀다. 한국에서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기 위해 문화예술시설에 가본 적 있는 인구의 비율인 문화예술관람률은 60% 정도다.²⁾ 여러 종류의 문화예술 중에서 박물관 관람률은 매해 15% 남짓이다. 영화관 관람률이 58%인 것에 비하면 박물관 관람률은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표 1. 2019 문화예술관람률

종류	음악·연주회	연극·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	16.5	13.7	1	58.4	15.7	13.0

박물관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지향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은 대도시 중심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05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현재까지도 ‘박물관역사문화교실’은 수강생 대다수가 60대와 70대일 정도로 노년층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³⁾ 반면 기초시, 기초군에서 박물관은 여전히 생소한 곳이다. 박물관은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가는 곳으로 여겨지며 성인들 특히나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박물관은 그저 다리 아픈 곳, 혹은 지루한 곳으로 인식되고는 한다. 문화예술관람률은 연령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2019년 자료에 따르면 20세 미만은 83.8%로 최고 수치를 보이다가 50~59세는 58.9%, 60세 이상은 31.2%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60세 이상은 20대와 비교했을 때 문화예술관람을 경험한 사람 수가 적다. 그런데 문화예술 장르별 관람 수치를 확인해보면 절반 이상이 영화관일 뿐 박물관은 15.7%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연령집단별 문화예술관람률(2019)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	83.8	82.8	78.8	74.4	58.9	31.2	63.6

출처: e-나라지표

2) 문화예술관람률,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51>(검색일: 2021. 10. 1.).

3) 문정훈, 「노년층 대상 교육의 변화를 통해 본 박물관의 역할 모색-국립중앙박물관 노년층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박물관 교육』 2(2018), p.74.

한편, 영화관이나 박물관 등 상당수의 문화예술 시설마저도 대도시 중심임을 감안할 때 과연 농어촌 기초군에서 60대 이상이 얼마나 박물관을 관람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박물관 교육은 지속적으로 박물관의 문턱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작은 시골 마을에서 박물관 교육이 어떠한 식으로 필요할지 구체적으로 나온 문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e-나라지표는 시도별, 도시와 농어촌별 문화예술관람률을 보여주지 않는다. 박물관 교육을 확산하려면 통계를 활용해야 하겠지만 실제로 농어촌 기초군에서 박물관 관람에 대한 지표는 빈자리다.

박물관은 지속적으로 관람객 친화적인 장소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고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의 관점에서 박물관 교육의 문턱을 낮추려고 하였다. 하지만 박물관을 친숙하게 여기며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문화에 대한 아비투스⁴⁾를 가진 사람들이다.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분포는 대칭적으로 그리고 역으로 구조화된다.⁴⁾ 대도시에서 박물관에 쉽게 접근하는 문화자본을 가진 노년층은 은퇴 이후 여가를 즐기며 학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소위 여유로운 사람들이다. 농어촌 기초군은 박물관 관람 비율도, 연령대도, 인식도 통계 수치에서도 빠져 있을 만큼 박물관 연구에서 진공 상태에 놓여 있다. 박물관 교육 역시 대도시 위주로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을 뿐 농어촌 기초군의 사례를 담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박물관 교육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의 자료 대신 자신이 체험한 연구 경험들을 직접적으로 기술, 분석, 해석하는 자문화기술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이 잘 확충된 대도시를 떠나 작은 기초군에 살게 된 연구자가 박물관의 역할과 박물관 교육에 대해 변환된 관점을 이야기한다. 연구자는 생활인의 관점에서 주거공간인 아파트 실내의 쾌적화를 추구하며 살아왔다. 한정된 공간의 효율성을 위하여 정리와 정돈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다. 반면 연구자는 기초군에서 농가주택 거주자들의 공간은 아파트 거주자들의 공간과 전혀 다르게 배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에 따라 생활 물품들이 서로 다른 유효기간을 가지고 배치되는데 여기서 수집 가능한 생활유물이 탄생하게 된다. 근현대 생활유물 수집·연구가 김영준에 따르면 근현대 생활유물이란 의식주 생활, 교육, 대중문화와 산업화 과정의 생산품 등 생활사 전반에 걸친 각종 근현대의 물건들을 말한다.⁵⁾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진 물건들이 기초

4) 피에르 부르디외의 지음,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새물결, 2006), p.478.

5) 생활유물은 삶의 숨결이자 과거와의 통로, 한겨레(2016. 9. 21.), https://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762131.html(검색일: 2021. 10. 1).

군의 농가주택 어딘가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 민속이나 생활사를 주제로 하는 박물관에서는 생활사와 관련된 유물을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⁶⁾ 농어촌 지역은 도시보다 많은 생활유물의 보고(寶庫)이며 실제로 생활유물 수집을 안내하는 지자체의 SNS 포스팅을 볼 수 있다. 2021년 전주 역사박물관 ‘전주 근현대생활유물 기획전’,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전시의 일환인 ‘강원도민 생활유물 모집’ 등이 그 사례다. 그렇지만 농어촌 지역에서 생활유물이 수집될 수는 있어도 생활유물의 생산자인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 교육이 연계되어 있지는 못하다. 또한 유물이 제작, 사용, 변화되는 과정은 인간의 거주 환경 및 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유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양한 관점의 해석이 필요하다.⁷⁾

이 글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각종 문서나 서류들, 우리가 추구하는 생활공간의 가치, 나아가 생활유물에 대한 연구자의 깨달음이자 지역 박물관의 새로운 역할과 지역 박물관 교육을 논의하는 시론적인 글이기도 하다. 아파트와 농가주택의 공간배치와 정리에 관한 서로 다른 관점과 설명은 어쩌면 장황해보일 수도 있지만 생활유물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라는 점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II. 연구방법 및 배경

1. 자문화기술지

자기 연구의 하나인 자문화기술지는 자서전(autobiography)과 문화기술지(ethnography)의 방법론적 특성과 장점을 결합한다. 자문화기술지는 자전적 자료를 원자료로 사용하여 문화기술지적 방법으로 자신과 사회의 문화적 관계성을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문화적 성찰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끌어내는 방법을 의미한다.⁸⁾ 자문화기술지는 자기, 권력, 그리고 문화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론화하는 데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개인적 이야기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야기되고, 이 이야기들이 다시 우리의 사회적, 문화

6) 양지영 · 이정우, 「새만금 간척지역 박물관 유물수집을 통해 본 지역사회의 참여 양상」, 『문화와 융합』 43-9(2021), p.704.

7) 양지영 · 이정우, 위의 논문, p.704.

8) Chang, 「Autoethnography: Raising cultural consciousness of self and others」, 『Studies in educational ethnography』 12(2007), pp.201-211; 박순용 · 장희원 · 조민아, 「자문화기술지: 방법론적 특징을 통해 본 교육인류학적 가치의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13-2(2010), p.56.

적, 정치적, 개인적 삶을 창조하고, 해석하고, 변화하도록 돕는지를 연구하는 방법론이다.⁹⁾ 자문화기술지는 기초군에서 박물관에서 유물 목록화 작업을 하는 연구 여정에서 저자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변환적인 관점을 박물관 교육에 관련지어 공론화하고자 하는 이 글의 연구목적에 부합한 연구 방법론이다.

연구자 스스로 강조하는 자아(auto), 문화(ethnos) 그리고 연구과정(graphy)의 측면에 따라 자문화기술지는 다양해진다.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라는 용어는 1975년 미국의 인류학자인 Karl G. Heider가 의해 1975년 최초로 사용하였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와 다르다. 처음에 사용된 자문화기술지는 Heider가 부족집단인 Dani 부족이 자신들의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는지 그들의 문화 자체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 Dani 부족의 자문화기술지라고 명명하였다. 이에 반해 인류학자들이 자신의 경험, 주관성, 관점을 드러내어 연구에 가미한 경우는 하야노(Hayano, 1979)의 연구가 최초라고 엘리스와 보크너(Ellis&Bochner, 2000), 리드-다나헤이(Reed-Danahay, 1997) 및 월콧(Wolcott, 2004)은 주장하였다. 기어츠(Geertz) 이후에도 많은 인류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커뮤니케이션학자, 인문학자들이 실험적인 자문화를 가미한 문화기술지를 출판하였고 주관성의 학문적 당위성을 주장했다.¹⁰⁾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 자신이 연구 도구다. 개인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검토하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변화를 만드는 것에 도움을 준다. 연구자는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살피며, 교육적 실천을 고민하고 연구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대도시가 아닌 기초군에 살게 된 연구자가 유물수집 연구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대도시 박물관과 지역 박물관의 문화적 격차를 마주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연구사업을 통해 미등록 지역 박물관에 대한 경험과 그 의미를 내부자적 관점에서 찾게 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자전적인 자문화기술지가 연구방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서울 출신 교육사 연구자가 본인의 경험을 반성하는 성찰적 문화기술지로도 볼 수 있다. 자문화기술지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인 연구자의 자기관찰 자료와 자기 면접자료, 자기반성적인 글과 자기분석 자료 등을 충분히 이용한다.¹¹⁾ 이 글의 자료로는 기초군으로 이주 후 개인 기억자료, 연구자의 휴대폰 메모장, 연구자 개인 SNS 기록, 연구자의 온라인 커뮤니티

9) 박순용·장희원·조민아, 위의 논문, pp.59-60.

10) 박순용·장희원·조민아, 위의 논문, pp.57.

11) 조소연, 「사회복지사인 질적연구자의 사회복지현장 연구 경험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3-2(2019), p11.

활동 기록, 일기 등을 활용하였다.

2. 연구 배경 및 맥락

나는 기초군에서 지역 박물관 유물 목록화 작업을 하면서 자문화기술지로서 이 연구를 구상하게 되었다. 내 삶의 궤적은 이 연구의 토대가 되었기에 간단한 연구 배경을 밝힌다. 나는 2019년 1월 경상북도 북부지방 A 기초군으로 이주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연구자였지만 특별한 소속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자로서 정체성이 더 큰 상태였다. 아이들이 어릴 때 가족끼리 떨어져 살기 싫다는 생각으로 배우자의 전근에 온 가족이 함께 낯선 곳으로 이사를 했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인생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살았다. 기초군으로 이사하기 전에 광역시에 잠시 살아본 경험은 있었지만 기초군의 경험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나는 ‘지역사회’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는데 외부자, 이주자, 이방인인 나에게 지역사회는 매우 높은 벽과 같았고 적응하기 쉽지 않았다. 나는 서울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북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쉽게 분리되었으며 거의 모든 마을 사람이 나를 이방인 취급을 하였다. 나는 그저 연구자로서 내 업무와 아이들의 양육자로서 내 업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지역사회에서 주민보다는 연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배제되고 있음을 합리화하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2021년 문화재청 사업의 일환으로 ‘근현대 보건위생 유물 목록화 작업’에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전국에 산재한 유물들을 특정 주제에 맞추어 박물관 소장 상황을 확인하고 가치평가를 내리는 일이었다. 역사 연구자에게 박물관은 익숙한 곳이다. 연구원들은 국공립박물관 등 등록 박물관을 중심으로 누리집을 통하여 근현대 보건위생 유물을 검색하고 확인할 목록을 만들었다. 그다음에는 각 박물관 학예연구사에게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는 공문을 보내고 실제로 방문하여 유물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가치 평가를 내리는 작업이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들은 학예연구사들의 환대를 받으며 작업을 진행하였다. 건조하고 먼지가 없고 시원한 곳에서 흰 장갑을 끼고 유물을 만지고 촬영하고 기록하였다. 어떤 유물은 어렵사리 전시장 케이스에서 꺼내서 촬영을 하기도 했고 어떤 유물은 최근 몇 년간 전시된 적이 없어서 지하 수장고에 있다가 오랜만에 빛을 보기도 했다. 박물관 학예연구사들은 이 사업에 대해 알고 있거나 취지를 이해하였으며 작업이 쉽도록 해당 박물관 소장 유물목록을 공유하기도 했다. 엑셀 파일로 저장된 유물목록에는 수장고에 있는 유물의 위치와 각종 주의사항, 연도, 치수, 취득 경위 등 각종 정보가 빠곡히 적혀 있기도 했다.

어느 날 나는 집 근처에 미등록 사립박물관인 OO박물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순수한 호기심으로 그곳을 방문하였다. 그곳은 폐교한 초등학교를 개조하여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곳 이었는데, K관장님 한 분이 일평생 수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었다. 근현대 보건위생 관련 유 물을 발견한 나는 절차대로 목록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절차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박물관은 유물목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 연구원들은 목록을 토대로 현재 사업과 관련된 유물을 추려내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한편, 이 사립박물관은 유물들은 목록이라는 것 이 존재하지 않았고, 수장고도 없었다. 유물목록과 위치는 모두 관장님 머릿속에 있었다. 나는 그 박물관에 가서 유물들을 확인하고 치수를 재고 사진을 찍고 연구실로 돌아와 엑셀로 목록 을 만들고 가치평가를 하는 작업을 하였다.

표 3. OO박물관 작업 일람

	일시	작업 내용
1	2021년 4월 1일	유물 전체 확인
2	2021년 4월 18일	유물 치수 기입 및 사진 촬영
3	2021년 4월 23일	유물 치수 기입 및 사진 촬영, 한의학 교수님 자문
4	2021년 8월 12일	사진 촬영 및 엑셀표와 대조작업, 관장님 자문

그 과정에서 나는 미등록 사립박물관이 상당수의 생활유물을 소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유물 중 상당수는 지역사회에서 수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작업을 하며 나는 지역사회에서 유물 수집과 박물관 교육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게 되었다.

Ⅲ. 생활 유물 수집의 문제: 그 많던 유물은 다 어디로 갔을까?

1. 도시화와 아파트: ‘신박한 정리’

나는 경기도의 모 대학병원에서 태어나서 생후 7개월 만에 서울로 이주하여 자랐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독주택과 같이 마당이 있는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분명 내가 어린 시절에 만 해도 서울에 꽤 많은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관리의 귀찮음, 재산 증식을 이유로 단 독주택을 거부했다. 내가 어린 시절 살았던 아파트만 하더라도 공간 배치에서 그 시대성을 지 속적으로 따르게 되었다. 내가 기억하기로도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곳은 바로 주방이었다. 전통

주택에서 근대식 주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개별적이고 소규모적인 주택의 생산과 공급 과정이 집합적이고 대규모적인 체제로 전환되었다.¹²⁾ 한국의 전통부엌의 공간적 범위는 부엌과 마당, 장독대 등 부속 공간까지 포함했다.¹³⁾ 그런데 1960~70년대 아파트 부엌 만들기에서 장독대의 문제와 대면하게 되었다. 장독대를 아파트에 끌어들이지 못하게 되자 서울시에서는 장독대 없애기 운동을 3년 계획으로 전개하였다.

“9일 김 서울시장은 금년에 대규모 간장, 된장 공장을 육성, 장독대를 차츰 없애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 장독대 없애기 운동을 3년 계획으로 전개, 금년에는 4천 내지 4천5백만 원의 시비를 투자하겠다고 말했다.”(『장독대 없애기 운동 전개』, 『동아일보』, 1968.1.9.)

실내와 실외를 아우르는 전통적인 한국 주거 공간은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거형태를 마주하면서 실외에서 필요한 기능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실내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아궁이라는 존재 때문에 방과 분리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부엌을 주방과 함께 실내로 배치하는 노력을 긴 시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전통적인 한국 주거 공간에 식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밥상에 음식을 차려서 각 방으로 음식을 나르기 때문이다. 주부의 입장에서는 부엌과 가까운 곳에 식당을 만들거나 한 공간을 식당으로 사용하기를 선호했을 것이다. 이로써 한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다이닝 키친(DK)이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주방과 부엌에 보통 미닫이 문이 있었으며 주방과 부엌은 거실과 단절된 공간이었다. 다이닝 키친이 있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거실이나 안방에서 상을 펴고 식사를 하는 것을 택했다. 1970년대 중반의 아파트 부엌은 시각적으로 거실과 연결성을 도모했고 점진적으로 거실과 공간적 통합을 취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가 되자 부엌은 거실에 완전히 개방된 형태가 되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아파트에서는 부엌과 거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부엌의 거실화, 거실의 부엌화가 진행되었다. 대면형 부엌은 아일랜드 키친을 넣고 주방이 부엌에서 거실을 등지지 않고 가족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그 대신 부엌에 있던 커다란 식탁이 요새는 아파트 전면부 혹은 앞 베란다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생겨났는데 큼직한 식탁은 작업대 혹은 책상을 겸한다. 부모와 자식이 밥 먹는 시간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을 식탁에 앉아서 숙제를 봐주

12) 전남일, 『한국주거의 공간사』(돌베개, 2010), p.213.

13) 도연정, 『근대부엌의 탄생과 이면』(SpaceTime, 2020), p.219.

고 독서를 하는 등 시간을 함께 보낸다.

나는 결혼 직후에도 신축 아파트에 살아보지 못했는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1990년대에 지은 거실과 식당 공간과 주방이 연결된 형태의 아파트에서 살아보다가 A 기초군으로 이사 와서 처음으로 대면형 부엌을 보게 되었다. 서울이든 어느 기초군이든 신축 아파트는 거의 동일한 평면 배치를 가지고 있다. 2010년 이래로 주방은 대면형 부엌으로 획일화되었기 때문이다. 대면형 부엌의 장점은 아일랜드 식탁을 조리대로 사용함으로써 탁 트인 공간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거실에서도 그 부엌이 잘 들여다보인다는 것이었다. A 기초군의 신축 아파트는 트렌드에 맞게 수납공간을 잘 갖추고 있었다. 처음에 집을 구할 때 부동산에 들어서 A 기초군의 아파트 몇 채를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상당히 많은 집에서 대면형 아일랜드 식탁 위에 각종 담금 청들과 장아찌, 장을 넣어놓은 단지가 올라가 있었으며 식탁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둘러보니 사각 접이식 밥상이 있었다. 싱크대에서 밥을 해서 다시 밥상에 그릇을 옮겨서 거실에서 먹는 식이다. 몇 집을 둘러봤는데 집 자체가 정말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어서 신축 아파트가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 부동산업자는 어르신들이 살던 집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고 했는데 신기하기만 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 오히려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 있었으며 50대 이상이 살고 있는 집일수록 물건들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나는 그나마 깔끔한 아파트를 찾아서 이사를 했고 대도시보다 훨씬 넓은 아파트에서 살게 됨을 감사하게 되었다.

인스타그램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본인의 거주 공간을 좀 더 인스타그램처럼 꾸미고 장식하게 되었다. 정리 정돈 수납 서비스는 평범한 집을 좀 더 인스타그램처럼 바꿔주기도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은 많은 사람이 도시화와 함께 매우 규격화된 아파트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나는 되도록 이삿짐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 사설 정리 정돈 수납 서비스 업체의 도움을 받았다. 정리 정돈 수납은 한정된 실내 공간 안에서 생활용품을 재배치하는 작업이다. 한정된 공간을 좀 더 넓고 쾌적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은 바로 버리는 것이며 미니멀 라이프의 실천이라고 말한다.

흔히들 말하는 미니멀 라이프란 미니멀리즘(minimalism)과 라이프의 합성어인데 자발적으로 불필요한 물건이나 일을 줄여 본인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니멀리즘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삶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장식, 거추장스러운 외형, 의식 등을 끊어내는 미술 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생태주의자이자 작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미국의 숲속 호숫가 오두막집에서 자급자족하며 지냈는데, 이를 미니멀 라이프의 효시로 여기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평생을 청렴하게 살았던 고(故) 이오덕 선생이

미니멀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다. 2011년 발간된 미국의 라이프 스타일 잡지 킨포크(Kinfolk)는 바쁜 일상 속에서 좀 더 자신에게 집중하는 단순한 삶을 지지하며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았다. 한편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너무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현대인의 생활을 비판하며 작가 조슈아 밀번(Joshua Millburn)과 라이언 니코데무스(Ryan Nicodemus)는 2011년 *Minimalism: Live a Meaningful Life*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동명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였다. 미니멀리즘의 열풍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미니멀리즘, 미니멀 라이프를 흔히 볼 수 있으며 이 주제의 대중 강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서구권을 중심으로 유행을 한 미니멀리즘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국에서도 유행하게 되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TvN에서 방영된 '신박한 정리'라는 예능 프로그램은 “나만의 공간인 집의 물건을 정리하고 공간에 행복을 더하는 노하우를 함께 나눔”을 표방했는데 대중을 대상으로 정리의 필요성과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이러한 경향에 영향을 받은 정리 정돈 수납 서비스의 전문가는 최근 6개월간,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분리하고, 최근 3년간 전혀 쓰지 않은 물건은 처분하라고 권고한다. 나는 정리 정돈 수납 서비스를 받으며 정말로 필요한 물건들만 남기고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모두 내보냈다. 어마어마한 양의 옷가지, 서류, 그릇 등 주방용품, 책 등을 기증하거나 재활용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을 왜 이렇게 가지고 있었나 하는 자책과 함께 좀 더 넓어진 공간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우리 집 실내 공간도 인스타그램 혹은 잡지에 나오는 멋진 공간처럼 좀 더 깔끔하게 정돈되었으며 그 가운데서 만족감을 느꼈다. 내가 사는 동네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정리 정돈 수납이라는 새로운 서비스업체가 생겨났는데 아파트의 보급과 함께 생겨난 새로운 직종이기도 하다.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사람들의 주거 공간은 아파트라는 실내 공간으로 한정되었다. 애초에 아파트라는 건축물은 도시화의 공간 부족을 해결하려는 방법이었지만 점차 생활양식으로 자리를 잡으며 대도시가 아닌 곳까지 주거 공간을 대체하게 되었다. 나는 A 기초군으로 이사를 해서 오히려 대도시에서는 살아보지 못한 신축 아파트에 살아보게 되었으며 규격화된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리 정돈 수납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이 서비스가 농촌 지역인 A 기초군까지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축 아파트가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인스타그램 속에서 대도시의 아파트와 농어촌 지역 신축 아파트의 실내 공간은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가진 물건들을 줄여가며 정갈한 이미지를 구현해나갔다.

2. 농가주택과 방치: ‘내뱉리면 죄받아’

나는 A 기초군으로 이사한 직후 가사도우미를 구하게 되었다. 연구와 육아를 반복하면서 모든 일을 내 손으로 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비교적 간단한 일은 아웃소싱이라는 방법을 택했다. 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0여년간 경험한 가사도우미의 업무란 매우 표준화되어 있는 편이다. 우선 현관을 제일 먼저 정리하고 흙과 먼지를 쓸어내고 그다음 순서로 빨래를 돌린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주방을 정돈하고 빨래를 확인하여 건조기에 돌린다. 집 전체를 정리하면서 청소기를 돌리고 건조기에서 마른 빨래를 꺼서 바구니에 넣어둔다. 밀대형 막대걸레를 활용하여 바닥 청소를 하고 손걸레로 작은 먼지를 훑쳐낸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2개를 세제를 이용하여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리면 끝이 난다. 어느 도시를 가든 가사도우미를 요청하면 똑같은 패턴으로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한다. A 기초군에서 가사도우미를 구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지역 YMCA가 고령자 인력은행을 운영하여 가사도우미를 송출하는 일을 맡았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을 보고 나면 깜짝 놀랐다. 어느 한 곳도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으며 수납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화장실 청소는 거의 대부분 잘 했지만 집안 정리나 청소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몇 번의 실패를 반복하고 나서야 나는 이것이 아파트 거주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이후로 나는 가사도우미를 하러 오신 분께 출신지와 거주지를 물었다. 이 인근 농촌 지역에서 과수 농사를 짓다가 신도시가 생긴 이후, 자식을 따라서 이주한 여성들이 있었다. 이들은 아파트 내부를 정리하고 수납하는 업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다. 지난 몇 십년간 아파트에 거주한 사람들은 어느 공간에 어떤 물건을 수납하는 것이 편리한지 알고 있으며 특히나 살림을 하는 주부들의 경우 주방에서 싱크대 어느 칸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우리 집에 왔을 때 정리와 수납을 수행하지 못한 가사도우미들은 아파트 관련 경험치가 쌓이기에 거주 경험이 너무 짧은 경우, 혹은 거주 경험은 길지만 아파트 생활의 습속을 익히지 못한 경우였다. 가끔 풀이나 참기름, 과일 등을 사러 인근 농가를 들릴 때가 있다. 농가의 주방이나 마당, 창고의 정리 상태를 보고 왜 그동안 여러 가사도우미가 정리와 수납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근대식 집합주택의 등장으로 도시 사람들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안락하게 영위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리고 아파트가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어가면서 몇 년에 한 번씩 이사하는 것은 그리 큰일이 아니라고 여기기도 한다. 그런데 A 기초군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은 평생에 이사를 열 번 이하로 가본 사람들도 있다. 마당까지 있는 공간은 결코 판상형 아파트처럼 한정된 공간이 아니다.

농가주택에 사는 어르신들의 삶은 대부분 미니멀리즘에 가깝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농사일을 하고 불필요한 지출도 하지 않는다. 인터넷 쇼핑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5일장이 서는 날 물건을 사오는 것이 전부다. 그럼에도 또 최근의 미니멀리즘 유행과는 거리가 멀기도 하다. 주택에는 마당부터 실내까지 정말 물건이 많다. 농가주택에 들어서면 시간이 멈춘 것과 같은 느낌을 종종 받는다. 럭키 금성이나 대우 탱크주의가 쓰여 있는 가전제품을 마주할 때마다 도시에서 언제 이 물건들이 사라졌을지 궁금해진다.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가 1983년 생산한 전자레인지(ER-601HB)를 소유한 사람이 34년 만인 2017년 이를 다시 LG전자 전시관에 기증해서 화제가 된 적 있다.¹⁴⁾ 대도시에서 1983년도 생산 제품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일지 몰라도 농어촌 지역에서는 비슷한 연식의 물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찬장에는 1970~80년대에 유행했을 밀크 글라스 그릇 세트가 있는가 하면 1981년 KBS 우주박람회, 1988년 올림픽 기념 수저세트, 혹은 컵 세트도 볼 수 있다. 고물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오래된 물건이 즐비하며 고장난 냉장고를 수납장으로 쓰는 경우도 종종 보았다. 도시 사람들보다 물건을 많이 사지는 않지만 한 번 산 물건을 잘 버리지 않기 때문에 집 안에는 물건이 가득하기만 하다. 농촌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양태는 미니멀리즘이지만 집 안의 모습은 맥시멀리즘에 가깝다.

한 번은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은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한 어르신에게 조심스레 말을 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간단했다. “내뺄리면 죄받아.” 물자가 풍족하지 않던 시대를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무엇인가 멀쩡해 보이는 물건을 버리는 일은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다. 한편 안락한 주거 공간을 위해 정리와 정돈, 수납을 하는 일은 규격화 속에서 경험치를 쌓아가는 것인데 이 규격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파트만의 정리 독법이 쉬이 이해될 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A 기초군의 신축 아파트에서는 갈등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아파트 마당에 본인이 농사짓는 깨나 고추를 말리거나 시골집과 마찬가지로 장독을 베란다에 놓고 메주를 띄우다가 이웃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한다.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여전히 농가주택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파트 공용 공간에 온갖 물건을 쌓아두기도 한다. 언젠간 다 쓸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내버릴 수 없다는 이웃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기도 한다.

14) 금성사 전자레인지, '34년 만의 귀향', 『Live LG, LG전자 소셜 매거진』(2017. 8. 24.), https://live.lge.co.kr/lg_er640hb_0824/(검색일: 2021. 9. 1.).

3. 생활유물의 탄생

나는 OO박물관에 전시된 다양한 유물들을 바라보며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유물이란 무엇인가. 유물이란 선대 사람들 혹은 고인이 후대 사람들에게 남긴 물건이다. 유물이 박물관에 전시되는 순간 오브제(objet)가 된다. 오브제는 박물관의 존재 이유이자 박물관의 분야를 결정짓는 요소이며 박물관의 모든 활동의 출발점이다.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박물관은 오브제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칙하에 설립되었다.¹⁵⁾ 그동안 많은 사람이 박물관의 오브제들을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런데 OO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을 확인하며 나는 생활사, 민속사, 향토사, 지역사 등의 분야에서 두 가지 시사점을 얻었다. 첫 번째는 유물과 고물, 두 번째는 정리와 방치의 이분법이다. 많은 생활 유물이 이 자리로 오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을까?

OO박물관에 소장된 근현대 유물 중 일부는 기증이나 구입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노획물이었다. 다시 말해 어디선가 주워온 것이다. OO박물관에는 조선시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서부터 서적, 생활용품, 잡화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모두 그 고유의 쓰임새는 잃은 지 오래다. 책이라고 해도 더 이상 사람들이 읽지 않는 책이며 서류라고 해도 더 이상 행정적으로 쓰이지 않는 서류다. OO박물관에 전시된 이 간판을 보자.



그림 1. 처녀상회 간판

‘처녀상회’라고 쓰여 있는 이 간판은 불과 몇 년 전까지 △△시 □□면의 오래된 가게에 붙어 있었다. 상가라고 하기도, 주택이라고 하기도 모호한 살림집이 붙은 가옥이었다. 간판에 적힌 전화번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간판을 굳이 교체하는 것도, 떼어내는 것도 번거로운

15) 조지 엘리스 버코 지음, 양지연 옮김, 『큐레이터를 위한 박물관학』(김영사, 2004), p.86.

작업이었기에 오랜 세월 그대로 붙어 있었다. 그 건물을 보수하면서 간판을 버리려고 내놓았을 때 OO박물관장은 그 간판을 가져왔다고 한다. 50여년 처녀상회를 지키며 장사를 했던 주인 김모 할머니는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 더 이상 가게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야 한글 공부를 시작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간판 밑에 있는 그림은 처녀상회 주인의 자화상이다. 90세가 넘어서 한글을 배우고 그림을 그린 행복감이 그림에서 묻어난다.

만일 이곳이 대도시였다면 이 간판이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대도시에서는 빠른 속도로 새로운 상점들이 생겨나며 또 빠른 속도로 상점들이 사라진다. 더 이상 상점의 기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간판은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으며 빠른 속도로 폐기된다. 도시의 생활 패턴으로는 살아남지 못할 각종 유물들이 기초군 지역사회에는 도처에 남아 있다. 굳이 박물관을 가지 않아도 오래된 농가주택에 가면 박물관으로 가도 어색하지 않을 생활유물을 찾을 수 있다. 대도시라면 진작에 사라졌을 유물들이 기초시, 기초군에는 남아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물품은 유물이 아니라 고물이다. 언제 사라져도 아쉽지 않은 고물일 뿐이다.

그렇지만 그 고물이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방치(放置) 때문이었다. 아파트라는 한정된 실내 공간은 생애주기에 맞추어 물건을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거주하던 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갈 때 보호자는 아이의 장난감들을 정리하고 새로 책상을 사주는 등 새로운 생애 주기에 맞춰 공간을 재배치한다. 아파트는 실내 공간을 필요 이상으로 확장해내기 어렵기에 일정한 주기로 대청소와 버리기를 감행하는 것이다. 또한 대도시 사람들은 이사를 자주 한다. 아파트가 재산 증식의 수단 중 하나가 된 이후 사람들은 이사를 감내해가며 평수를 넓혀가고 전략적으로 이사를 하기도 한다. 이사를 앞두고, 혹은 이사 직후에 짐을 정리하며 사람들은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고 털어낸다. 몇 년에 한 번씩 집 안의 물건을 털어내기에 30년 이상 된 물건이나 자료를 찾기가 비교적 어렵다. 그런데 대도시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기초군의 농가주택에서는 이사를 해서 집의 평수를 늘려가지도 않고, 전세 주기에 따라 이사를 하지도 않는다. 대도시에 비해 물건을 털어내고 버릴 전환기가 그다지 오지 않는 것이다. 대도시 사람들에 비교하면 기초군 사람들은 물건을 그다지 자주 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상품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록, 서류, 문서 등을 망라한다.

나는 OO박물관에서 한지(限地)한의사 이희병에 관한 자료를 조우하게 되었다. 한지한의 사라는 말 자체가 매우 생경했는데 지역사회 보건의문제와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의사와 간호사가 대부분 도시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주민들은 대부

분 건강 서비스를 적기에 받지 못하였다. 그 당시 정부의 보건사회부는 무의면(無醫面)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의사배치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미 농어촌지역에서 의사면허 없이 환자 치료를 하던 사람들을 의사가 없는 한정된 지역에서 활동하게 하는 한지의사 혹은 한지한의사로 양성화하는 한지의사제도를 도입하였다.¹⁶⁾ 한지의사 혹은 한지한의사는 1970년대 이후 감소 추세에 있었지만 1981년 보건사회부의 통계를 확인하면 전국적으로는 358명, 그중에서도 경북지역에는 43명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한지의사는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는 한 명도 없었다.¹⁷⁾ 이희병은 1926년 이래로 안동군 도산면에서 영창의원이라는 한의원을 운영하였는데 해방 이후에도 한지한의사로서 무의촌 취약 지역에서 의료업 및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종사하였다. 동시에 안동군(현 안동시) 도산면 공인예방접종요원, 은혜국민학교 교의 등을 역임하였으며 지역사회 유지로 활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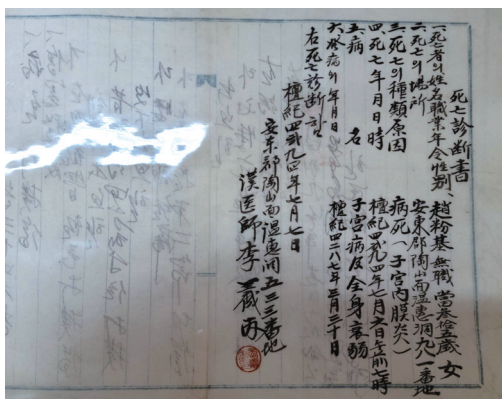


그림 2. 이희병이 작성한 사망진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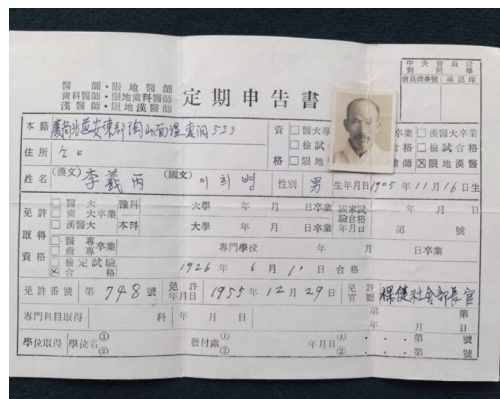


그림 3. 이희병의 한지한의원 정기신고서

현재 OO박물관에는 이희병 관련 자료가 100여 건 이상 소장되어 있다. 이희병 관련 자료로는 해방 전후 한의학 서적 필사본, 저술본, 자필 사망진단서, 사체진단서, 기생충 방제 사업 공문, 한지한의사 등록필증, 한지한의사 면허, 자필 이력서,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공로장, 위촉장 등이 있다. 이희병은 의료, 보건, 위생 관련 자료 외에도 본인의 가계, 족보, 문중에 관한 자료도 다수 남겼으며 현재 그가 사용한 의원 도장 및 개인 도장까지 모두 수집되어 있다. 이희병이 소장한 의서 목록과 실제 보관 의서 그리고 그가 발부한 처방전은 당시 한의사들이 어떤 의서를 보고 어떤 방식으로 의료를 실천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 기록물이 된다. 이희병이

16)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한 모임, 『지역보건 60년의 발자취 1』(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한 모임, 2012), p.75.

17) 보건사회부, 『보건사회』(1982), p.149.

직접 편찬한 것으로 여겨지는 『嘉慶子書抄』(가경자서초) 1, 2, 3권과 『嘉慶子記言』(가경자기언)은 한의사로서 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가 중시한 의학지식이 무엇인지 시사한다. 또한 『嘉慶子書抄』중에는 본인이 세운 영창의원의 주소, 위치, 건립 이유, 경북지역 한의사 모임 주소록 등이 기재되어 있어 1950~70년대 안동지역에서 활동한 한의사 및 한지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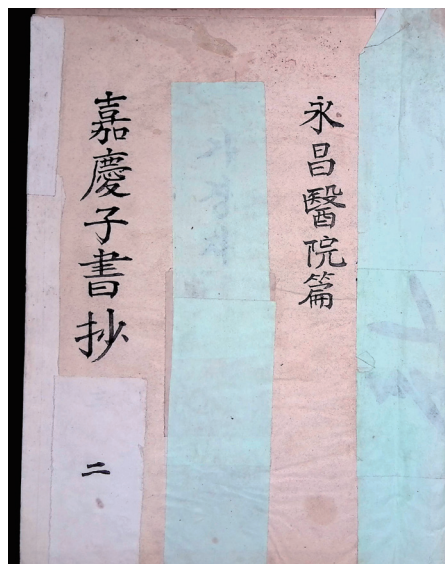


그림 4. 가경자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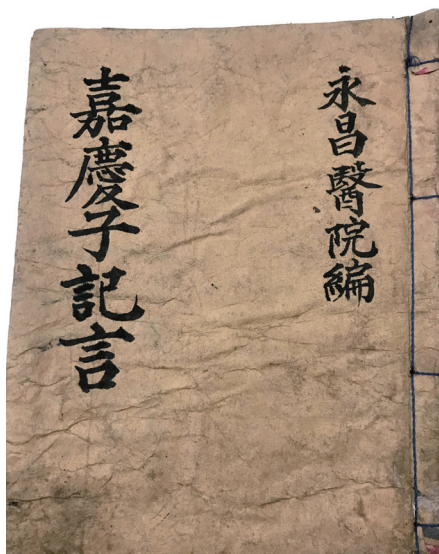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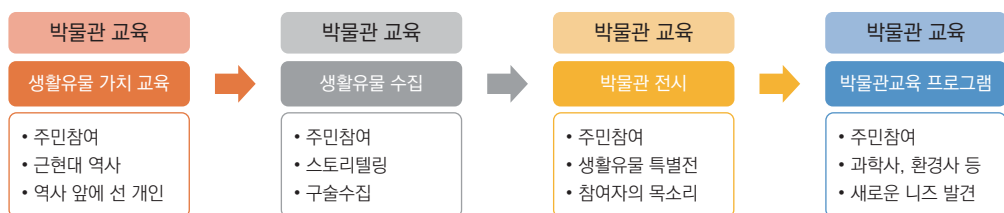


그림 5. 가경자기언

나는 한지한의사 이희병에 대한 자료를 '이희병 지역보건 아카이브'라고 명명하고 유물을 따로 모아 범주화하였다. 한지한의사 면허증, 등록필증, 이력서 등 이희병 관련 유물은 날개로 보았을 때 문화재로서 큰 가치를 지닌다고 하기 어렵지만 지역보건 업무에 종사한 한지한의사 이희병이라는 인물의 생애사로 본다면 가치평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희병의 자료는 어떻게 하여 OO박물관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었을까? 이희병의 자손이 기증을 하였을까? 사실 이 자료는 고물상을 통해 이곳까지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오래된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폐지상자가 버려졌는데 그 소식을 들은 관장님이 어렵사리 이 자료를 구해왔다. 아마도 이희병의 자료 역시 오랫동안 방치되었을 것이고 방치된 결과 버려졌어도 유물로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대도시에서 더 이상 이러한 생활유물을 구하기 어렵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는 민속사, 생활사, 향토사, 지역사에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유물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IV. 지역 박물관의 역할과 박물관 교육

A 기초군에 살기 전까지 나는 농어촌 지역에 그토록 많은 생활유물이 산재하는 줄 알지 못하였다. 박물관 유물이란 발굴 작업 혹은 문화재 복원작업을 통해 전문가들이 발견하거나 가보로 내려오던 것들을 기증받은 물건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A 기초군 지역사회 주민들 역시 본인들의 집에 생활유물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은 TV 프로그램 '진품명품'에 나올 법한 도자기, 놋그릇, 엽전, 족보 등 오래된 물건들을 가보라고 말하고 소중히 여기고는 한다. 그런데 골동품상이나 박물관에서 봤음 직한 물건들보다 도시든, 어디든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생활유물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교사인 누군가가 작성한 교무일지, 어머니가 꼼꼼하게 작성한 가계부, 스크랩북 등은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단 하나의 물품일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생활유물들은 버리기는 아까운데 끌어안고 있는 구닥다리, 혹은 고물일 뿐이다. 이 생활유물들이 대방출되는 시기는 개발로 인한 이사 혹은 소유자의 죽음이다. 어르신의 작고를 마주할 때 소유한 물품들은 버려지는데 개인적인 문헌 기록, 앨범 등은 대부분 소각을 하게 된다. 일기, 가계부, 성적표, 앨범 등 개인기록물들은 소유자의 죽음과 함께 소각되는 것이 농어촌 지역의 오래된 풍습 중 하나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 박물관의 생활유물 수집과 박물관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활유물 수집과 박물관 교육은 위의 그림처럼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생활유물의 가치에 관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치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로 실제적인 생활유물을 수집할 수 있다. 수집된 유물을 대상으로 박물관 전시를 하고 전시된 유물을 대상으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박물관 교육은 네 가지 단계마다 서로 다른 형태로 포함된다.

첫 번째로 지역 박물관은 지역사회의 생활유물 수집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유물의 가치에 대한 박물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역 박물관은 마을 공동체와 함께 박물관의 유물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논의하고 산재된 생활유물을 발견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내가 사는 기초군 지

역의 박물관을 가보았지만 일제시기 이후로 근현대사에 대한 전시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농어촌 지역에서 1945년 이후의 현대사(contemporary)는 무엇인가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현대사는 어르신들의 삶과 함께해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생활유물 수집에서 중요한 작업 중 하나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생활유물의 정의와 가치를 이해시키는 것이다. 주민 설명회 혹은 이장단 모임 등 지역공동체를 통하여 생활유물의 가치에 관한 박물관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할머니들이 시집을 때 만들었던 자수 병풍과 같은 수예품이 얼마나 가치 있는 물건이며 유물이 되는지 지역사회 주민들을 납득시키는 과정은 박물관 교육의 일환이다. 사람들은 본인이 살아온 시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동시대의 편견에 둘러싸여 그 시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 지역에 산재한 생활유물 가치에 대한 교육은 그 시대를 겪어온 어르신들에게 근현대 역사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회와 역사 앞에 오롯이 선 개인으로 자신 주위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두 번째로 지역 박물관은 실제적인 생활유물 수집 작업을 통해 개별적인 박물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역 박물관의 학예연구사는 마을 공동체 현장에서 실제적인 생활유물을 수집하게 된다. 현장에서 사람들이 실제 사용하는 생활물건들의 의미가 재해석되기도 하고, 선대로부터 물려 내려온 유물들이 우연치 않게 발견되기도 한다.¹⁸⁾ 그 과정에서 유물의 소유자와 학예연구사는 많은 대화를 나누며 소유자나 이를 구경하는 마을 관계자들 모두 참여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참여자는 생활유물의 취득, 소유, 사용, 보관 등에 관해 구술하면서 지역사, 생활사에 관한 구술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참여자는 역사와 본인의 삶의 맥락 속에 생활유물을 위치 지으며 개인과 가족 공동체의 삶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 이때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개인의 반성적 성찰은 넓은 의미의 박물관 교육으로 작용한다. 박물관 교육은 박물관의 전시실, 자료실이나 강당에서 책상과 걸상에 앉아 일방적인 강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딘가에서 느슨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세 번째로 지역 박물관은 생활유물을 전시해 박물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동안 박물관의 기능을 말할 때 자료의 수집 보관과 조사연구를 거쳐 그것을 전시하는 행위를 통해 '보급 교육'으로 일컬으며 박물관의 주된 역할로 여겼다.¹⁹⁾ 박물관 전시를 통한 교육은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기획하면 좀 더 효과적인 전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

18) 양지영·이정우, 위의 논문, p.712.

19) 이난영, 「박물관의 보급교육 활동에 대하여」, 『박물관신문』 109(1980.09.)

래된 생활 가전제품 등을 모아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 변화와 과학사의 변화 등을 기획할 수 있다. 박물관은 전시기획 과정을 거쳐서 집 안에서 천덕꾸러기 역할을 하던 오래된 물건을 전시품으로 변모시키는 곳이자 ‘전시’를 하며 교육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생활유물의 기증자는 본인의 유물, 나아가 본인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전시장 내에서 전시해설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또 다른 교육적 기능을 경험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지역 박물관은 생활유물에 관한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의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은 좀 더 지역 밀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 근현대사, 생활사 맥락에서 생활유물의 가치를 강조할 수도 있으며 과학사, 환경사적 맥락에서 연속과 단절을 조망할 수도 있다. 박물관 교육에서 생활유물 가치 교육이나 생활유물 수집은 주로 어르신 세대를 대상으로 했다면 박물관 전시와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생활유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한 박물관 교육은 단절된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을 도모할 수 있다. 박물관이 다양한 문화와 많은 물건을 관람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과 나라의 문화를 알아가고, 그 문화와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것이²⁰⁾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역시 세대 간, 도농 간의 서로 다른 문화의 이해와 소통에 보탬을 준다.

V. 맺음말

앞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도시의 아파트 생활에서는 잦은 이사와 정리로 많은 생활물품이 폐기된다. 최근 많은 사람이 좀 더 안락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소유 물품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신박한 정리’를 시도하고 있다. 도시의 아파트식 생활방식으로는 구조적으로 생활유물이 남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농어촌의 농가주택에서는 많은 생활물품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생활유물의 보고(寶庫)라고도 할 수 있다. 많은 어르신이 농가주택에 소유한 물건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삿리면 죄받아”라는 말을 들으며 상품이 귀한 시절을 살았던 그네들의 세계관을 엿보았다. 생활유물은 단순히 그 물건 자체의 가치보다는 그것을 사용하고 오랜 시간 소유했던 사람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입체적인 유물로 거듭나게 된다.

20) 국성하, 「우리나라 박물관교육의 역사-1945년 이후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박물관교육연구』 3(2009), p.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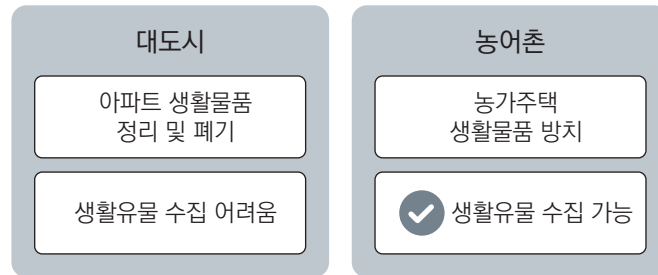


그림 7. 생활유물 수집에 관한 대도시와 농어촌

‘처녀상회’의 간판과 주인 할머니가 그려낸 자화상의 사례처럼 지역 박물관은 박물관 교육의 관점에서 생활상이 묻어나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술하고 채록하는 작업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농어촌을 중심으로 소각되거나 폐기처분될 위기에 처한 생활유물이 여기저기 있다. 어르신들의 생애주기와 함께 소멸될지도 모르는 향토사, 민속사, 생활사, 지역사 유물들을 구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박물관은 생활유물 가치 교육, 생활유물 수집, 생활유물 전시, 생활유물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해 상호 배움과 학습을 도모하는 박물관 교육을 실행할 수 있다.

나아가 지역 박물관은 좀 더 문턱을 낮춰 마을 공동체 문화를 공동 생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수집된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기획하는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와 소유자들과 협업할 수도 있다. 지역 박물관은 공간을 마을 공동체와 공유하여 생산적인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근현대 생활유물 전시는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박물관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기존 지역 박물관들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유교적 질서, 가부장적 질서에 충실한 유물들을 주로 전시했으며 유물 속에서도 여성이나 소수자들은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근현대에 사용된 생활유물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망라하며 그동안 여성들이 관장한 영역과 그들의 일상생활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소외된 여성 어르신들의 삶을 복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박물관은 자연, 문화유산을 수집, 보존, 연구, 전시하고 평생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했다. 또한 박물관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공동체적으로 함께 일구는 물질적, 정신적 과정이자 총체적인 생활양식인 문화를 담는 공간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²¹⁾ 작은 지역사회에서 박물관이 생활유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지역공동체와 소통하고 공동체 문화를 창출하여, 새로운 박물관 교육의 모형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21) 이영신, 「박물관+행복한 동행-대상의 경계없는 공간 프로그램」, 『박물관 교육』 4(2020), p.54.

참고문헌

〈단행본〉

- 도연정, 『근대부역의 탄생과 이면』(SpaceTime, 2020)
- 보건사회부, 『보건사회』(1982)
- 전남일, 『한국주거의 공간사』(돌베개, 2010)
- 조지 엘리스 베키 저, 양지연 역, 『큐레이터를 위한 박물관학』(김영사, 2004)
-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한 모임, 『지역보건 60년의 발자취 1』(2012)
- 피에르 부르디외의 저, 최종철 역, 『구별짓기』(새물결, 2006)

〈연구논문〉

- 국성하, 「우리나라 박물관교육의 역사-1945년 이후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박물관교육연구』 3(2009)
- 문정훈, 「노년층 대상 교육의 변화를 통해 본 박물관의 역할 모색-국립중앙박물관 노년층 대상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박물관교육』 2(2018)
- 박순용·장희원·조민아, 「자문화기술지: 방법론적 특징을 통해 본 교육인류학적 가치의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13-2(2010)
- 양지영·이정우, 「새만금 간척지역 박물관 유물수집을 통해 본 지역사회의 참여 양상」, 『문화와 융합』 43-9(2021)
- 이난영, 「박물관의 보급교육 활동에 대하여」, 『박물관신문』 109(1980. 9.), 국립중앙박물관
- 이영신, 「박물관+행복한 동행-대상의 경계없는 공감 프로그램」, 『박물관교육』 4(2020)
- 조소연, 「사회복지사인 질적연구자의 사회복지현장 연구 경험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3-2(2019)

〈웹사이트〉

- e-나라지표, 「등록 박물관/미술관 현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40
- e-나라지표, 「문화예술관광람률」,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51>
- “금성사 전자레인지, ‘34년 만의 귀향’”, 「Live LG, LG전자 소셜 매거진」, 2017년 8월 24일. https://live.lge.co.kr/lg_er640hb_0824/
- “생활유물은 삶의 숨결이자 과거와의 통로”, 한겨레, 2016년 9월 21일. https://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762131.htm

Abstract

Between Organization and Collection: A Researcher's Autoethnography on the Collection of Domestic Artefacts and Museum Education in a Local Rural Museum

Seo Narae

Research Professor, Folklore Institute, Andong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describes the transformative perspective of museums and artifacts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research in a rural area by a researcher from Seoul through an autoethnography. I have an ambivalent desire; one the one hand, I have a desire for organization as a housewife, and one the other hand, I have a desire for collection as a historical researcher. Different desires clashed and made me reflect on my own identity. Through the lives of Seoul and this rural area, I would like to discuss what practices and values can be given to in field of museum education. This article attempted to analyze artifacts from a contemporary historical perspective with a transformative perspective. After 1945, along with modernization and urbanization, people's envious perspective for new residential spaces was created, and at the same time, rural areas were overlaid with an underdeveloped and backward image. Here, we look at the modern spatial arrangement and organization, preference for apartments, and the recent trend of arrangement and organization. On the one hand, rural areas tend not to move their residences as much as possible, but the reality that household goods are placed as a kind of neglect is juxtaposed. Among them, domestic artefacts that make up folk history and living history can be collected much more in rural areas than in cities. There is a new need for a museum education to discover artifacts in the reality that old household supplies are still considered junk. Therefore, local rural museums would play a role in discovering artefacts in daily life as community practice and helping anyone access contemporary local history, folk history, and life history.

Key words: Museum education, folk history, life history, autoethnography, community culture, community

